

개인전을 마치며

김용익

평소 이 사이트를 통해 열성적이고 신랄한 최진욱 선생의 글을 흥미롭게 읽어오던 내가 이번에는 그 몰래 지켜보던자의 부담없는 즐거움의 자리에서 쫓겨나 부담을 느끼며 최선생의 글에 무어라도 응답을 해야하게 생겼다. 그가 나를 불러내고 있으니 말이다. 글이 됐건 그림이 됐건, 던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미상불 맥빠지는일 아니겠는가.....그동안 최선생의 글을 재미있게 읽어온것에 대한 댓가로 , 그리고 내 전시에 대한 현재까지는 유일한 반응을 보내오신 분에 대한 예의로도 나는 한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들기는 수고를 해야 하겠나 보다.

늘 그랬었지만 이번 전시만큼 나 자신 모순을 느끼며 한 전시는 없는듯 하다.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숨고 싶은 욕구, 내놓고 싶은 욕구와 숨기고 싶은 욕구 사이의 “아득한” 모순 말이다. 숨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자신을)드러내고 (작품을)내놓고 있는 내 삶의 모순. 어쩔수 없이.....

아니, 그럼 그냥 그만뒀버리면 되지 “어쩔수 없이”란 구차하고 비겁한 말이 어디 있느냐란 힐문이 귀에 쨍하고 들리는듯하다.

그러나 모순과 분열은 이제 내 앞에 “아득히” “정서로 가로놓여있다.” 나의 두통과 메스꺼움의 원인을 이 “아득함”이라고 한번 진단해 본다. “세상”은 나에게 그 모순과 분열에서 벗어나 동일자로서의 자아를 갖추라고 요구한다. 아마 그렇게 될 때가 나의 두통과 메스꺼움이 사라질 때이고 내가 작업을 그칠 때 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소위 70년대 한국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을만큼 받은 한 작가의 2000년대 현재의 모습이다.

최진욱선생, 선생이 추천하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없애는 약, 그것이 곧이 곧대로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요. 선생은 그 약의 효능을 굳게 믿기에 이런 사람을 이해하려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런점이 바로 최선생의 삶에서의 강점이자 약점이지만.... 그리고 강성원 선생의 글은 내가 변론 못하지만 나의 글은 내가 잠시 변론 할 수 있소.

“남근주의, 가부장주의 그걸 반대하는 혁명 혹은 ‘테러’까지 몰아 그 반대의 언덕에 서있는게 에코 페미니즘이라니 엄청나게 위대하다”라고 최선생이 쓴 대목 말인데, 분류해 보자면 혁명과 테러는 내가 쓴 단어이고 남근주의, 에코페미니즘은 강선생이 쓴 단어이고 가부장주의는 최선생이 덧붙인 말이지요.

나는 9.11테러를 보면서 이제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임을 안 혁명가들이 선택한 방식이 테러 아닌가 생각해 본 것이고 그 테러가 헤테로토피아, 즉 기존의 사회적 배치에 대한 대항 배치의 한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본것이요. 그리고 그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을 보며 계몽주의 이성의 몰락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남근주의, 가부장주의 그걸 반대하는 혁명, 혹은 ‘테러’까지 몰아 그 반대 언덕에 서있는게 에코 페미니즘”이란 말- 강선생 글을 꼼꼼히 읽어 봐도, 내 글을 다시 읽어봐도 혁명과 테러가 에코페미니즘의 반대언덕에 있다는 공식이 나오지 않는군요. 아마 최선생이 강선생 글과 내글을 읽으면서 머리속에서

그것이 오버랩 되어 잠시 분류의 혼동을 일으킨듯 싶소.

어쨌든 나는 현재 심한 패시미즘을 앓고 있으며 현재의 인류 문명과 미래에 대해 매우 절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고백을 한것이오. 이러한 정서 바탕 위에서 나는 왜 전시를 하는가 자문하여 본 것이 전시장에 붙어있던 “나의 글”이오.

패시미스트도 “정치적 진보와 문화적 진보”의 행동 대열에 참여 할 수 있소. 아무것도 하고 싶은게 없는 사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 아니겠소. 자못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말속에 내가 생각하는 패시미스트의 윤리란 것이 깃들어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와 최선생이 갈라서는것 같소.

나의 그림에 붙어있는 음모, 작은 글씨, 얼룩, 가는 선, 등은 모더니즘 회화로 상징되는 기존의 배치에 균열과 파열구 즉 푸코를 내식대로 인용한다면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하는 인덱스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결코 기존공간의 바깥에있는 외부공간이 아니다. 내부안에 있는 외부이다.(이러한 설명쫄의 글을 용서하시라.) 이것을 나는 모더니즘 회화의 껍질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기생”하는 이유에 대한 변으로 삼아본다. 또 하나의 예로 몇 년전 모 잡지의 대담 기사중의 일부를 기억에 떠오르는데로 옮겨본다.

고교시절 학교생활의 그 규율, 감시, 처벌, 이모든 것이 너무나도 숨통을 졸라 어떤 탈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살수 없었던 그녀는 학교의 내규집을 보고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다. 일년에 38일까지는 결석을해도 제적 당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매년 38일 동안은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맘대로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견디며 3년의 고교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될수도 있다고.....

학교가 싫고 못견디겠으면 그런식으로 비겁하게 빌붙어 있지말고 자퇴를하고 네 맘대로 살지 그러느냐고 말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학교라는 제도 이외에 다른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파시즘이다. 버스안의 승객이 불평하니 그럴래면 택시타면 되잖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파시즘”의 한 예다.

이제 전선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우리의 적은 전방에만 있지 아니다. 우리 곁에도, 내 안에도 있다. 우리의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 되어야한다.(어디선가 들은 말인듯 한데 기억이 안난다)

오늘날 주밀하게 짜여진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어렵게하며 우리를 가두고있지 아니한가. 누군가는 말한다. “그러나 예술가는 마음만 먹으면 화폐권력과 시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그러나 그의 자유, 그의 탈 영토는 재영토화된다. 탈영토와 재영토의 순환구조 속에서 영원히 탈주선을 타야만하는 예술가의 삶은 종종 분열된다.

은유, 환유, 생채기.....이쯤에서 이제 서서히 두통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오늘 밤에도 또 약을 먹고 잠을 청해야만 할까부다.